



[금융]
소중한 물건
추억 디지털 간직
신한카드 NFT 서비스
06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metro

서울시, 민생회복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 등 8576억 투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지급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 발행
프리랜서 등 보상 사각지대 지원



오세훈 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서울시의회와 협의 끝에 확보한 8576억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4無(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용자 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재정 효과는 1조807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사용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50만명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내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인 고정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다. 작년에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4無 안심금융'에는 올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 사용(1월 24~26일)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는 15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수를 해 4~5월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역량을 높이는데 501억원을 사용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환자를 치료하는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관리 전담인력을 150명 증원한다. 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밑돌 때를 지방정부 재정이 '정상'인 상태로 본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선다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생존지원금은 단순히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라며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의 개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고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지급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출직은 지역에서 민심을 얻고 표를 얻기 때문에 공약을 한 사업은 실행해야 하는 게 약속인데 그걸 이번 예산에 감안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영유아 성행동 이해' 교육영상 배포

부모 교육 영상 3편 유튜브에 게시
올바른 대응방법·예방법 안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성행동 이해' 부모 교육 영상 3편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영상은 ▲영유아 성행동이란? ▲우리 아이에게 성행동이 나타났다면? ▲부모가 우려할 만한 성행동을 예방하려면?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성행동을 처음 맞닥뜨리는 부모라면 당황하기 마련이다"며 "특히 최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우려할 만한

영유아 성행동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교육 영상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 영상 1편에서는 영유아기 성심리 발달과 영유아 자위행위,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행동, 성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 관찰되는 대부분의 성행동이 발달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성교육 방법은 영유아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두번째 교육 영상에서는 이상 심리적 관점에서 성행동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아이 성행동의

강도와 빈도, 집착성, 발달 부적절성, 공격성에 따라 이상 성행동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고 구체적인 관찰, 관심 돌리기, 부드러운 제재 반응을 통해 대응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교육 영상 3편에서는 영유아의 성행동이 평소 심리적 결핍,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사건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인을 파악해 예방할 방법을 안내한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 교육 영상을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센터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세액 10% 공제

연납 납부서 발송... 1월 중 납부시 혜택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13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차례(6월과 12월) 부과 고지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설 연휴가 겹쳐 내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 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 및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세계태권도품새대회 D-100... 방역 만전

백병원·일산병원 등과 의료 업무협약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양시는 11일 고양시청 본관에서 잔여일수 표시기 제작식을 열고 본격적인

품 조성에 나섰다.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남녀 개인전, 단체전 등 36개 종목에 70여 개국 선수단 참석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직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12월에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 등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본부를 구성해 방역 체계를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6 해질 17:35

1월 13일 (木) 음력 : 12월 11일

수도권 날씨 -9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3/-4, 동두천 -12/-3, 백령도 -4/-3, 파주 -12/-4, 가평 -12/-4, 서울 -9/-4, 양평 -9/-3, 수원 -8/-3, 용인 -8/-3, 평택 -10/-2, 인천 -8/-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매일 135만명 확진에도 파우치 “美, 위드코로나 초입에 다가서” /사진 뉴시스
▲EU, ‘사법부 독립 침해’ 폴란드에 950억원 벌금 예고

▲해의 중국 민주인사들, 뉴욕에 텐안먼 시위 기념관 추진
▲WHO “2달 안에 유럽 인구 절반이 코로나 감염될 것”



▲세계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4.1%로 하향” /사진 뉴시스
▲日 내부 위기감 “G7에 일본 대신 한국 들어갈 수도”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